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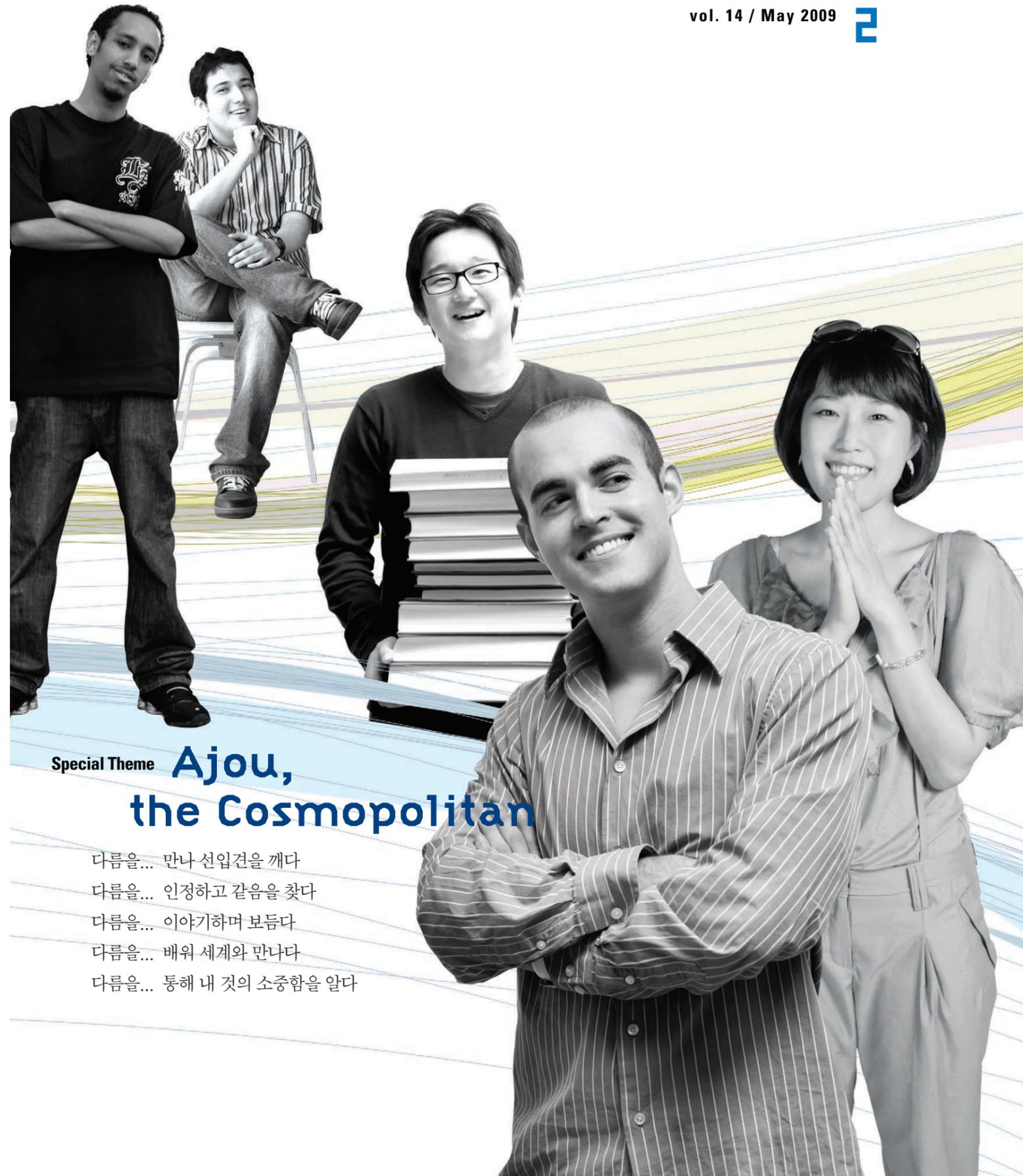


아주대학교 홍보대사

I amAjou는 | 아주대 타운(<http://town.cyworld.com/ajou>) 운영, 각종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진행, 학교 홍보 UCC 및 웹진 제작, 학교행사 지원, 캠퍼스투어 진행, 전국 대학생 홍보대사 연합 활동 참여, 홍보비디오 및 홍보책자 모델 활동 등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경쟁력을 높이고 아주대학교의 대표 얼굴로 대내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선발은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의: 홍보팀 031-219-2919

김창규 화학신소재공학부 | 김희은 미디어학부 | 박성한 기계공학부
 김민주 인문학부 | 김지경 사회과학부 | 엄지희 미디어학부 | 송선규 전자공학부
 박소영 사회과학부 | 김민기 미디어학부 | 오현규 전자공학부 | 김지경 사회과학부
 구정미 사회과학부 | 김광진 정보및컴퓨터공학부 | 김아라 경영학부
 김자은 인문학부 | 윤희선 정보및컴퓨터공학부 | 양홍훈 사회과학부
 이해미 인문학부 | 정수지 인문학부 | 오영택 사회과학부 | 이정민 전자공학부
 정영빈 사회과학부



Special Theme **Ajou,
the Cosmopolitan**

- 다름을... 만나 선입견을 깨다
-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찾다
- 다름을... 이야기하며 보듬다
- 다름을... 배워 세계와 만나다
- 다름을... 통해 내 것의 소중함을 알다

Special Theme **Ajou,
the Cosmopolitan**



'나와 같지 않다' 는 것은 '틀림' 이 아니라, '다름'이다.
나와 다른 외모, 나와 다른 언어, 나와 다른 문화...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름을 만난다.
다름은 다양함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포용하는 사람.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함을 배우려는 사람.
이를 통해 결국 모두가 하나임을 아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코스모폴리탄이라 부른다.
우리는 아주인을 세계시민이라고 부른다.

DYNAMIC TOMORROW



Dynamic Tomorrow는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아주대학교를 표현한 아주대학교 캐치프레이즈에서 따온 것입니다. 부제 "인간존중", "실사구시", "세계일가"는 아주대학교의 학교이념으로 인간존중에는 아주대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 실사구시에는 아주대학교 연구에 관한 이야기, 세계일가에는 아주대학교의 국제화에 관한 이야기가 실립니다.

Dynamic Tomorrow - 세계일가
2009년 5월호(통권14호)

발행일 _ 2009년 5월 1일
발행인 _ 아주대학교 총장
편집인 _ 아주대학교 대외협력처장
발행처 _ 아주대학교 홍보팀 031-219-2917-9
기획, 편집 및 디자인 _ 플러스81스튜디오스 02-542-0810
사진 _ Bul Studio, Studio Infinite
그림 _ 오혜진
출력 및 인쇄 _ 미디어체인 02-2277-7364

Dynamic Tomorrow _ 세계일가는 아주대학교 소식지로 비매품입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주대학교 홍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webzine.ajou.ac.kr)을 통해서도 Dynamic Tomorrow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14



22



20



28



18

06 **다름을... 만나 선입견을 깨다**
제3세계의 친구를 만나 국가, 언어, 피부색, 문화 등 서로의 다름에 대한 선입견을 깨뜨리다.

08 **다름을... 인정하고 같음을 찾다**
서로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통점을 하나하나 찾아가므로써 서로에 대해 익숙해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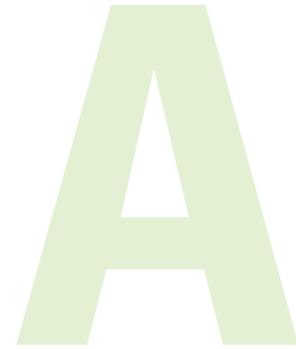
10 **다름을... 이야기하며 보듬다**
수업 중에, 방과 후 과외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생들과의 차이를 배워간다.

12 **다름을... 배워 세계와 만나다**
아주만의 다름을 배우는 특별한 방식을 통해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의 세계를 만나다.

14 **다름을... 통해 내 것의 소중함을 알다**
태권도를 매개로 글로벌 교류의 장이 되고 있는 동아리 '차오름' 을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깨닫다.

16 **코스모폴리탄을 향한 지름길을 안내하다**
웹에서 글로벌 아주를 만나다.

18 **토종한국인,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다**
아주대와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의 학위를 동시에 받은 김노을 동문의 코스모폴리탄되기 과정을 듣다.



26

20 **Ajou Scenery**
개교 36주년 기념주간 이모저모

22 **Ajou Campus Sketch**
봄에 찾아온 손님, 당신은 아주인입니다
개교 36주년을 맞아 학교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부모와 함께 호흡했던 신입생 학부모 개강파티 그 현장을 찾다.

24 **Ajou Fresh Blood**
새로움+새로움의 시너지
금융공학협동과정에 새로 임용된 심규철 교수의 새로움과 새로움이 빛어낸 시너지를 만나다.

26 **Ajou DNA**
아주에서 자라 세계에서 연구한다
아주대에서 학·석·박사 과정을 마친 후 독일 측지학 방법 연구소 연구원으로 '차세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원종훈 동문을 만나다.

28 **Ajou Spirit**
아주안의 세계를 그리다
세계와 호흡하는 글로벌 언론으로 진화하고 있는 아주대 영자신문사 Ajou Globe를 만나다.

30 **Ajou Energy**
교환학생 다녀왔니? 안 다녀왔음 말을 마

32 **Ajou News**

35 **Ajou Global Campus Map**



2007년 한국은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로부터 "민족우월적인 단일민족 개념을 극복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여전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주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세계시민(코스모폴리탄, cosmopolitan)으로 성장하는 길은 해외로 나가는 것 뿐일까?

'세계를 집으로 삼는다'는 코스모폴리탄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 중 으뜸은 다름을 인정하는 편견 없는 마음이다. 이 편견 없는 마음은 열심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해외여행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문화를 일상생활에서 접하며 몸소 느껴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

이번 학기 아주대학교에는 62개국 547명의 외국인 학생이 캠퍼스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아주대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기숙사에서, 식당에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학생들을 만나 함께 강의를 듣고, 식사를 하고, 일상을 보낸다.

학생들은 유럽인이 가진 우리와 다른 세계관을 접하게 되고, 아시아인들과의 유사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발견하며 아시아인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한다. 자원봉사모임에서 만난 아프리카 친구를 통해 영화나 책 속이 아닌 현실 속 아프리카의 존재를 인식하며, 그 대륙

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실한 실체로 느낀다. 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키운다.

파란 눈, 검은 피부의 그들이 아주인에게는 더 이상 나와 다른 별종이 아니다. 다른 피부색깔, 언어, 문화,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지구촌에 모여 사는 세계시민 즉, 코스모폴리탄이라는 유대감을 느낀다.

그래서 아주(Ajou)는 세계시민(Cosmopolitan)이다.
Ajou, the Cosmopolitan !

Ajou, the Cosmopolitan



다름을 ... 만나 선입견을 깨다



우리는 나와 다른 모습을 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서 이질감을 느낀다. 그 이질감이 편견으로 이어지고 선입견으로 자리 잡아 새로운 만남을 방해하기도 한다. 여기 선입견에 맞서는 아주인들이 있다. 제3세계 국가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간대 인간으로 만나 우정을 쌓으며, 아주대학교에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바꾼 아주인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 외국 친구들과 친해지기 전에는 힌두교도들은 모두 소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교도들은 모두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랍국가 사람에게 고기를 권하면 실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우셨어요. 그런데 실제 만난 아랍국가 친구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아랍 학생 중에서도 터번 쓰는 것을 고집하는 학생이 있고, 안 쓰는 학생이 있는 것처럼 같은 종교라고 해서 꼭 같은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NUBI 도우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에 비해 만나기 힘든 제3세계 외국인들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카메룬, 네팔, 콜롬비아 등 경제가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국가의 친구들이어서 무조건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 외국인 친구가 몇 명 더 생긴 것 뿐 별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계속 만나며 즐겁게 놀면서,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아도 되는 것일까 싶을 때가 많습니다. NUBI 활동을 하며 배운점이라면 스페인어와 불어의 필요성입니다. 우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라 생각하고 제2외국어로 일본어, 중국어 등을 배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외국 학생들은 영어 외의 언어를 세계 공용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스페인어,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이 사용하는 불어가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스페인어나 불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외국학생들이 참 이해해 하곤 합니다.”

정재훈 정보및컴퓨터공학부 4, 국제대학원 NUBI 도우미 회장

“ 한국에 오기 전에는 엄청난 속도의 경제 성장과 높은 생활수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막연히 무척 서구화된 나라일거라고 생각했어요. 유럽과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어 서구인들처럼 개인주의가 심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본 한국은 모든 가정마다 인터넷이 깔리고, 모바일 폰을 어린 아이들이 갖고 있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구 사회와는 아주 다른 나라였습니다. 사람사이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전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더군요. 어른들에 대한 예절이 엄격하다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죠. 인사를 할 때, 식사를 할 때, 술을 마실 때 등 그 상황마다 변하는 예절 방식이 저에게는 어려워 한국친구들에게 상황마다 질문하게 되지만, 현대와 전통이 함께 하는 이런 한국의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Newton Tebongnue Meih 국제대학원, NGO학과

“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의 이미지는 어렸을 때 봤던 영화 '부시맨'의 이미지 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디오피안 친구를 만나며 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프리카는 TV에서 보여지는 낙후된 대륙, 기아와 병마와 싸우는 어려운 이웃이 많은 대륙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아프리카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외국인 교환학생과의 버디프로그램인 프렌즈클럽을 통해 이디오피안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서 그들을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프리카를 떠올리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대륙이자 인류의 발상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직 깨어나지 않은 대륙'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학교에서 공부하는 제3세계 학생들은 나라에서 지원하는 엘리트들이어서 그런지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들의 지식수준에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영어는 물론이고 몇 개 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요. 이들과 어울리며 흑인이나 아프리카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혹은 아시아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을 텐데 싶어 씩씩하기도 합니다.”

김준표 산업정보시스템 공학부 4



NUBI Ajou | 국제대학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도와주는 아주인들의 자원봉사 모임으로 2008년 결성되었다. NUBI Ajou는 아주를 누비고, 세계를 누비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프렌즈클럽 | 2002년에 결성된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학생자원봉사 모임으로,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한국음식 만들기, 서예 및 다도체험, Temple Stay, 한국영화관람, 한국민속놀이체험 등 각종 문화 활동을 함께하는 학생클럽이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나면
보다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법. 진솔한 대화 속에서
그 동안 찾을 수 없었던
공통점을 발견한 지구
정반대쪽의 아주인들. 언어도
생김도 문화도 다른
이들이지만 아픈 역사로 인한
현재의 모습을 보며 공통점을
찾고 서로에게 더욱 친근함을
느끼는 이들의 대화를
들어본다.

다름을 ... 인정하고 같음을 찾다

김민희

사회과학부 4학년으로 네덜란드에 교환학생으로 다녀왔다. 네덜란드에서 만난 남미 친구들과의 인연으로 남미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아주대에 돌아와서도 멕시코 친구인 오스칼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서로에게 한글과 스페인어를 가르쳐주고 있다.

오스칼히루베르테포란코패나데

한국말을 배우는 것이 정말 즐겁다는 멕시코인. 현재 인문학부 영문학과 재학 중이며, 한국의 자연경관, 특히 산과 호수를 좋아한다.

김민희(이하 김) // 안녕! 요즘 한국어 공부는 잘 되니?

오스칼(이하 오) // 생각보다 꽤 어려워 고생을 하고 있어. 게다가 한국어를 못해도 캠퍼스에서 불편하지 않다보니 더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아 걱정이야. 아주대 학생이나 교수님 모두 영어를 잘해서 그런지 자꾸 편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게 돼. (웃음)

김 // 모국어인 스페인어 말고도 영어도 잘하면서 한국어까지 공부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는 지난 학기 네덜란드로 교환학생을 다녀왔는데 네덜란드어를 거의 배우지 못했어. 거기서도 영어가 통하니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네덜란드어를 배우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보니 너처럼 열심히 하지도 못했어. 한국어 공부만큼은 내가 책임지고 열심히 도와줄게.



오 // 고마워.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국어를 배우며 느끼는 것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는 거야. 식민지 시대를 겪으며 한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보낸 시간이 수십 년이라고 들었는데 한국어를 그대로 사용하잖아. 일본어를 사용하는 지역은 없어, 그렇지?

김 // 음~ 생각해보니 그러네. 너희 남미 국가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식민지 시기가 짧았어. 간단한 일본어 단어를 아직도 사용하기도 하고, 70세가 넘는 어르신들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기도 해.

오 // 그래, 우리 남미국가들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유럽 강국의 지배를 받았고 식민지 지배가 끝나자 쿠데타나 군부독재가 이어지는 시기가 300년 이상 지속 되었어. 당연히 우리 원주민들의 문화와 언어, 종교는 전혀 계승되지 않았지. 남미 국가들의 종교가 90% 이상 가톨릭인 걸 보면 알겠지. 라틴아메리카하면 타악기 음률에 맞춰 어디서나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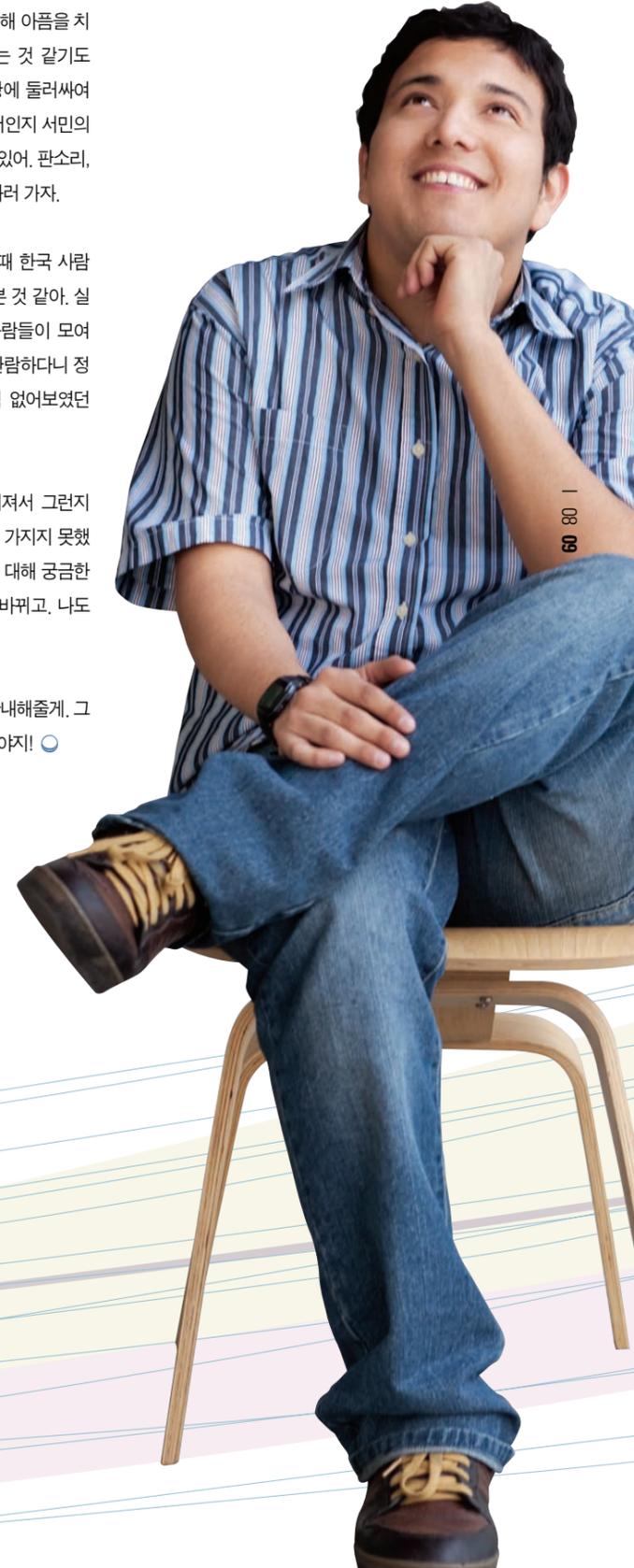
지만 그 정열이 그 동안의 우울한 역사와 빈곤한 현실을 숨기기 위해 더욱 흥겨운 음악과 리듬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김 // 같은 화려하고 정열적인데, 그것을 숨기려고 흥겨운 모습을 보인다 왠지 역설적인 느낌인데... . 그것이 무엇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해도 너희 민족은 흥이 있는 것 같아. 그 흥을 통해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해. 우리민족도 중국, 일본 등의 열강에 둘러싸여 전쟁을 참 많이 겪었던 나라야. 그래서인지 서민의 애환을 노래한 전통놀이가 발달되어 있어. 판소리, 마당놀이 등등. 언제 한번 함께 구경하러 가자.

오 // 좋지. 생각해보니 2002월드컵 때 한국 사람들이 모여 응원하던 모습을 TV에서 본 것 같아. 실제 경기장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노래 부르며 놀이처럼 경기를 관람하다니 정말 놀랐어. 그리고 보니 전혀 공통점 없어보였던 남미와 한국은 닮은 점이 많구나.

김 // 미국드라마나 영화에만 길들여져서 그런지 미국이나 유럽 외의 나라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는데 너와 함께 이야기하며 남미에 대해 궁금한 것이 참 많아졌어.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 나도 언젠가 남미에 가보고 싶어.

오 // 그땐 내가 한국어로 멕시코를 안내해줄게. 그 날을 기약하며 한국어 공부를 시작해야지! ☺



너무도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이 한 캠퍼스에서 생활하다보니 비슷한 외모와 비슷한 문화만으로도 아주대 캠퍼스 안의 아시아인들은 '우리'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다. 한국,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4개국 친구들이 모여 아시아인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느끼는 서로의 다른점과 공통점을 이야기한다.

다름을 ... 이야기하며 보듬다

유수현(이하 유) // 아시아 친구들은 외모가 비슷해서 그런지 처음에 말을 걸기가 수월하죠. 대부분 한국드라마를 많이 보고 한국 스타들을 많이 알아서 이야기도 금방 통합니다.

Eric // 워낙에 한자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점이 많으니 금방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녕 // 문제는 서로 너무 비슷하다고 여기다보니 오히려 서로의 다름을 인정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예 외모가 다른 외국인이었다면 애초부터 나와 다른 사람이라 여기며 마음에 두지 않을 것들도 비슷하다 여긴 한국 친구들이 하면 마음이 상하더라구요. 저는 한국 친구를 만나면서 당혹스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뭔가 부탁할 때 '다음에' 라고 하고는 대부분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처음에는 연락을 기다리다 먼저 연락을 하곤 했는데 거절하는 방법이더군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다음에 (연젠기는 꼭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 라는 의미였어요. 이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치껏 잘 이해해요. 또 한국인 친구들도 점점 정확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유 // 외국인 친구를 사귀면 그런 경험은 다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프리카 친구들과 수업이 끝난 후 '밥 먹으러 가자' 라는 말을 먼저 꺼냈다가 제가 초대를 한 것이 되어 그날 밥값을 다 낸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는 초대를 한 사람이 그 날의 자리를 모두 책임을 지는게 당연한 문화인 것 같더라고요. 유럽 친구들은 모두 함께 맥주를 마시러 가기도 각자 자기 음료를 시키고 자기가 돈을 냅니다. 돈을 걸지도 않아요. 남이 시킨 것은 안주한 점도 안 먹으려고 해요. 각각의 문화에 장단점이 있으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냥 외국인 친구들 성향에 따라 맞춰주거나 제가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죠. "this is korean way" 라고 하면서요.

Ryan //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매트르 섹슈얼 (metro sexual) 열풍이 처음엔 소킹했어요. 남학생이 여학생 같은 백이나 밝은 파스텔 톤의 옷을 입는 것이 처음엔 정말 이상해 보였지만 지금은 저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만 입어야죠. 인도네시아의 친구들은 여자 같으며 놀릴 거예요.

Eric // 중국에서 방영하는 한국드라마에는 한국인들이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본 한국 학생들은 오히려 중국인보다 더 보수적이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며 예의 범절도 몸에 배어있어 놀랐어요. 한두 살 차이라도 선배에게 존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나이를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이름 대신 '형', '누나', '선배' 라는 호칭이 이상했는데 이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요?

Ryan // 인도네시아도 위계관계가 엄격하긴 하지만 한국에서의 선후배간 관계는 처음엔 의아했어요. 교수님도 아니고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말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배로 존대를 하면 그만큼 후배를 다시 챙겨주더라고요. 그 후배는 선배한테 받은 만큼 후배를 챙겨주는 방식으로 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좋아 보여요.

유 // 한국도 이젠 선후배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영어강의가 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선배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늘고, 유럽 교환학생들처럼 더치페이도 자연스러워지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점점 우리나라도 선배에게 존대하는 모습이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가장 먼저 나이를 물어보더군요. 처음엔 이름 대신 '형', '누나', '선배' 라는 호칭이 이상했는데 이젠 나이 어린 친구들이 제 이름을 부르면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던데요?



좌담회 참가자(좌측으로부터)
Ryan Eko Putranto(경영학부 교환학생, 인도네시아)
종녕 (경영학부 1, 중국)
유수현 (경영학부 2, 한국)
Lam King Fai, Eric (사회과학부 교환학생, 홍콩)



김희은(미디어학부 3) 학생은 이번 학기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알렉스와 함께 우리나라 통일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나라 남북관계에 대해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생각도 많이 하고 있어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경제 상황이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민족의 평화통일이 먼저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알렉스에게 내 생각을 선뜻 얘기할 수 없었던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상황이나 남북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온 교환학생과의 만남에서 필수 요건은 ‘국제적, 세계적 이슈에 대한 지식과 나름의 견해’ 라는 것은 이미 아주대학교에서는 상식이다.

김희은 학생은 “유럽 국가들은 시민주의, 공산주의 등의 영향을 받아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취업을 위해 무언가를 따로 준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세계평화 나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에 관심이 많아요. 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보면 학점, 영어, 취업만을 위해 너무 올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라고 말한다.

“600여 년 전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양에 이르는 항로와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메리카 대륙까지 개척한 유럽인들은 여전히 그 시선이 세상 밖으로 뻗어있는 듯합니다. 아직도 유럽인들은 세계를 자신의 무대라고 생각하고, FTA·EU·WTO 등 뉴스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들을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기아, 테러, 전쟁 같은 국제적 이슈들은 바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존재나 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 아닐까 의아했는데 멀리 보고 넓게 보는 이들의

마인드 때문에 유럽에서 여전히 자연과학이나 인문학 등 순수학문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손종진(경영학부 2) 학생은 말한다. “당장의 좋은 결과보다는 인류를 걱정하고, 먼 미래를 생각하는 여유로운 마음이 정말 좋아보였는데 유럽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세계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국제정치경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한국적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과목입니다. 예를 들면 FTA나 EU처럼 세계가 새로운 경제구역으로 묶어가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인 관점으로 경제를 풀어보는데 교수님 설명만 듣기보다는 유럽 친구들과 각자 다른 관점에서 의견교환을 하고 토론하다 보니 제 시각도 명확해지고 공부하는 재미가 두 배로 늘었습니다.”

손종진 학생은 “유럽학생들은 우리나라에 오면 처음에는 높은 생활수준에 한 번 놀라고 그에 비해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무지하거나 둔감한 것에 두 번째로 놀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 같은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 유럽학생들의 이런 생각은 곧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주대 캠퍼스 안에서는 말이죠.”

“유럽 남학생들이 아주대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라고 말하는 이한얼(미디어학부 4) 학생에게 그 이유를 묻자 “유럽 남학생들은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매너가 몸에 배어있어요. 레이디 퍼스트 마인드가 아주 투철해서 선택권을 준다던가, 무거운 짐을 대신 든다거나, 문을 열어준다거나 하는 것들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여학생들이 처음엔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건가 오해할 정도로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줘요. 이런 매너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습관 같은 것이라고 해요. 여학생들이 민망해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대 여학생들도 그런 배려를 당연한 듯 받고 많은 아주대 남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여학생들을 배려해주기도 해요. 이런 문화가 빨리 아주대 밖으로도 퍼졌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사귀고 우정을 키워가는 방법 중 으뜸은 대화. 외국인 친구와 우정을 키워가는 방법 또한 다르지 않다.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나에게 없는 좋은 점을 배우며 그 배움을 통해 서로가 성장하여 진정한 친구가 되어간다.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있는 만큼 당장의 미래보다는 넓은 시각으로 생각의 여유를 가질 줄 아는 유럽 친구들과 우정을 키워가는 아주인들을 인터뷰했다.

다름을 ... 배워 세계와 만나다



다름을 ...

통해 내 것의 소중함을 알다

외국인 친구들과 친해지기 위한 필수가 오직 영어실력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국 한 번 가지 않아도, 뛰어난 영어실력 없이도 외국인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곳, 오히려 외국인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것과 친해지고 싶어 찾는 곳이 있다. 태권도 동아리 차오름이 그곳이다. 외국학생들에게 우리 고유의 무술 태권도와 함께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며 우정을 쌓고 있는 차오름 학생들을 만났다.

매일 오후 6시 30분이 되면 체육관 2층 연습실은 땀과 열기로 가득 찬다. 태권도 동아리 차오름의 연습시간이기 때문이다. 발차기 연습이 한창인 20여 명 남짓한 학생들 중 반은 외국인 교환학생이다. 태권도복을 입은 외국인. 어찌 보면 어색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호기심을 넘어선 열정을 느낄 수 있다.

동아리 '차오름'은 조그만 세계

알렉스, 제이, 오스틴, 파비앙, 미누엘, 크리스티앙, 줄리, 캔디... 그 이름만큼 국적도 다양하다. 스페인, 미국, 독일, 도미니카 등 세계를 그대로 모아놓은 듯하다. "차오름은 아주대 학생들의 태권도 동아리예요. 외국인 학생을 위해 만든 동아리가 아닌데도 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활동하는 동아리는 차오름이 유일할거예요. 매 학기마다 1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먼저 흥미를 보이고 찾아와요." 6년째 차오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성한(기계공학부 4) 학생은 말했다. "많은 동아리와 소학회를 제쳐두고 일부러 차오름을 찾아오는 이유는 태권도가 한국 고유의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겠지



요. 외국 학생들과 매일 만나 함께 운동을 하다 보니 이전 외국인이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운동 후에 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맥주를 마시기도 하는데 몸으로 부딪힌 후라 그런지 아주 빨리 친해져요. 보디랭귀지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신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 영어실력이 늘고 외국인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도 없어졌어요."

차오름은 외국인 학생을 따로 배려하지 않는다. 보통의 아주대 학생처럼 똑같이 훈련한다. 최진우(법학부 2) 차오름 회장은 "외국인 교환학생들을 위해 만든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을 대할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그들의 반응을 살펴야 하거든요. 저희는 태권도 실력 연마를 위해 모인 동아리니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거죠." 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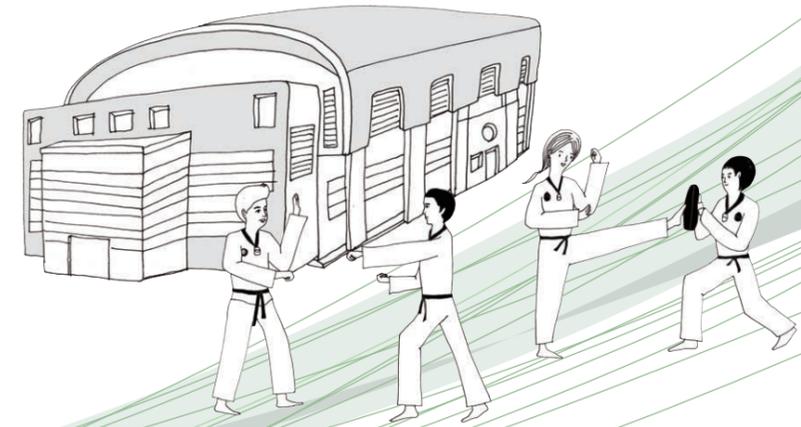
태권도에 한국문화는 덤으로

차오름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학생들은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만큼 차오름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다. 입학하자마자 차오름에 가입해 열심히 활동 중인 정자인(환경건설교통공학부 1) 학생은 "태권도 용어가 당연히 한국말이다 보니 그 의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정신적인 것을 중시하고 예를 높이 사는 태권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해줘요. 간단한 한국말, 예를 들어 '항', '누나' 같은 호칭을 가르치고 선후배간의 관계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고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언니', '오빠' 라고 부르면 무척 재미있어 해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만나 몸을 부딪히며 쌓은 우정은 외국 학생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가도 계속 이어진다. "인터넷 메신저로 연락하기도 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꾸준히 인연을 이어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매일 만나던 사이라 그런지 갑자기 못 보게 되면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죠. 기회가 되어 그 나라에 놀러가거나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면 우리가 태권도를 가르쳐줬듯 거꾸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외국인이라는 생각보다는 태권도에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지요. 태권도라는 매개체로 이렇게 국제적인 우정까지 쌓을 수 있다니 신기해요."라며 훈련부장을 맡고 있는 이경재(정보및컴퓨터공학부 4) 학생은 말한다.

영어 실력보다 더 중요한 태권도 실력

박성한 학생은 가장 자랑스러웠을 때를 꼽으라고 하자 주저 없이 말한다. "한국 남자들은 초등학교시절 누구나 태권도장을 한 번씩 다니는데다 군대에서도 필수적으로 배우는 것이 태권도잖아요. 그런데 외국 학생들에게는 다르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발차기 시범을 한 번씩 보여줄 때마다 외국 학생들이 경외하는 눈빛으로 쳐다봐요. 멋있으며 계속 칭찬을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으쓱하더라고요. 저의 서투른 영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이라도 더 배우려 말을 시키는 외국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코스모폴리탄을 향한 지름길을 안내하다

웹으로 만나는 아주 글로벌 카페



우리학교는 매 학기 5백여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오고, 150여 명의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해외자매대학에 파견되고 있다. 아주인들은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글로벌 정보를 나눠주기도 하고 다른 학생들의 핫 정보를 얻기도 하며, 실시간으로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하고 있다. 웹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글로벌 세상을 만나보자.

<http://cafe.ajou.ac.kr/OIA>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그 나라 문화와 대학생활을 사전에 알 수 있다면 파견 후 좌충우돌하는 일은 줄어들 터. 직접 외국 대학에 가지 않아도 캠퍼스 안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와 대학들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다. 절차나 형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글을 올리자! 국제협력팀의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숙 시원한 답변을 해주고, 설명까지 덧붙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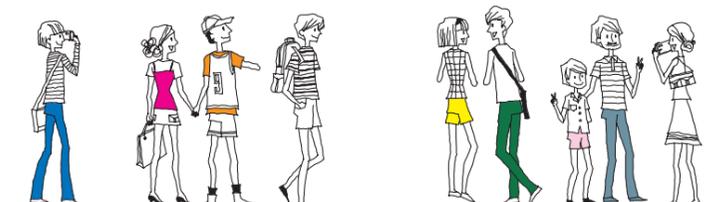
이 사이트의 장점은 무엇보다 선배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 경험자들의 생생 경험담! 세계 각국에 파견되었던 선배 교환학생들이 각국의 현지 사정은 기본이고, 저렴하고 쉽게 숙소를 구하는 법, 한국에서 사오면 더 저렴한 원서 목록들, 체재 기간 동안 소요될 수 있는 생활비, 나라별로 조심해야 할 사항, 독특한 관습이나 주의해야 할 예절 등 자신들이 좌충우돌 겪었던 경험과 정보들을 국가별, 대학별로 올려놓았다. 교환학생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아주인에게 이 커뮤니티는 시행착오 없이 쉽게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는 보물 창고다.

www.ajou.ac.kr/facebook

우리학교에 오거나 올 예정인 외국인 교환학생, 유학생과 아주인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소셜 네트워크 웹사이트(Social network website)인 페이스북에 만들어진 우리학교 네트워크 웹사이트다.

세계에서 온 외국인 친구를 사귀 수도 있고, 교환학생을 가게 될 나라의 친구들 도 만나 이런 저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으며, 외국인 학생들과 친구 맺기를 통해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한 것들이 무엇인지 엿볼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이 아주대를 알아가는 공간이기도 하다. 아주대에 교환학생으로 오기 전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토론회시판을 통해 아주대와 수원의 위치, 한 달동안 드는 생활비, 음식을 구입하기 쉬운 장소, 서울과의 거리 등의 궁금증을 올리면, 아주에 파견된 교환학생이나 우리학교 학생들이 답변을 해주면서 우리학교의 정보를 알려나가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세계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의 장이 되고 있는 이곳은 마우스와 키보드를 통해 아주라는 공간대로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인터넷 속 글로벌 아주의 역할을 독특히 하고 있다. ○



모여라! 글로벌 동아리 카페

아주에는 글로벌과 관련된 동아리와 소학회가 많이 있다. 어학 관련 동아리부터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동아리까지. 이런 동아리에서 워킹업 되고 단련된 아주인들은 캠퍼스 안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사귀고 함께 공통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해 나간다.

AJESS <<http://cafe.daum.net/ajess>>

1980년에 설립된 우리학교 영어회화 동아리. 매주 목요일 2시간 정도 가지는 regular meeting에서 2~3명의 speech 발표자가 시사성 있는 주제를 정해 발표한 후, 나머지 학생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주제를 정해 영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신입생 때는 힘들지만 영어강의에 도움이 되고, 수업 발표 때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박범식(산업정보시스템공학부 2) 학생은 그룹 토의 시간을 통해 프리토킹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물론 선배가 멘토 역할을 하며 토론과 발표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가을에 열리는 AJESS 최대 행사인 UEBF(University English Broadcasting Festival)에서는 영어로 기획한 뉴스와 쇼, 드라마를 선보이며 이를 통해 동아리 회원들의 영어실력을 쌓아 간다. 지난해 콩푸랜더의 콘티를 직접 짜 최대한 원작의 분위기를 살린 드라마는 학생들의 호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ANC <<http://www.ajouari.com/anc>>

시사 주간지 Newsweek를 보며 세계를 배운다. 매일 오후 5~7시까지 강의실을 빌려 2개의 토틍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1학년부터 동아리 멤버였던 정의석(기계공학부 4) 학생은 시사공부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의 경제위기 탓인지 주제의 대부분이 '세계의 경제위기' 라고. Newsweek를 연구하는 칼럼 활동 이외에도 일년에 한 번 OB들과의 모임은 ANC의 가장 큰 행사로 선배들을 통해 사회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타 학교 Newsweek 동아리와의 연합칼럼 등을 통해 실력을 겨루며 영어실력도 향상시키고 있다.

ATRC

<<http://club.cyworld.com/ajoutime>>

1989년 창립된 ATRC는 미국 시사주간지 TIME을 공부하는 동아리이다. 50명 회원 중에 매일 10명 이상은 모여 TIME지를 공부한다는 그들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읽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사와 영어가 눈에 쏙 들어온다고. 동아리 창립제에 그 동안 읽었던 TIME지의 표지와 관련된 내용을 해석하고 이야기를 곁들여 내놓기도 한다. 회장인 김성환(건축학부 3) 학생은 영어를 공부하려고 ATRC에 들어왔지만, 공대생들에게 취약한 세계 시사에도 민감해지면서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졌다고 한다.

MOZALT <mozalt.cyworld.com>

Move on! Zealous All around Leaders' Team의 약자인 MOZALT는 일주일에 한 번 경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영어강의 시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해볼 수 있어 수업시간에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일주일에 두 번 TOEIC과 영어 회화로 나누어 진행되는 스터디 모임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기초를 다지는 일로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영어 능력을 기초로 학생들의 내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으로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일본연구회 <www.ajoujapan.w0.to>

'아주 속의 작은 일본'이라 불리는 일본연구회는 국제학부의 일본지역전공자 이외에도 일본을 알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매주 한 번 열리는 총회에서는 일본의 문화체험이 이루어지는데 일본 음식 만들기, 일본 만화 더빙 놀이, 일본 전통 게임 배우기, 일본 댄스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JLPT, 일본어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스터디 모임이 별도로 준비되어 시험에 대한 정보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다.

Ajou Friends Club

<<http://club.cyworld.com/Ajoufriendsclub>>

외국인 교환학생을 위한 학생자원봉사 모임인 아주 프렌즈클럽. 이 모임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외국인 교환학생들의 픽업을 비롯하여 수강신청, 학교생활 등을 서포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체험 행사를 열어 한국문화와 음식을 알리고 세계의 다양한 문화도 접할 수 있는 글로벌 모임이다.

AGA

<<http://club.cyworld.com/ajouga>>

Ajou Global Ambassador에 선발된 학생들이 운영하는 카페. 국제협력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내국제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 교환교수 및 해외자매대학 외빈 방문 시 우리학교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를 소개하는 일을 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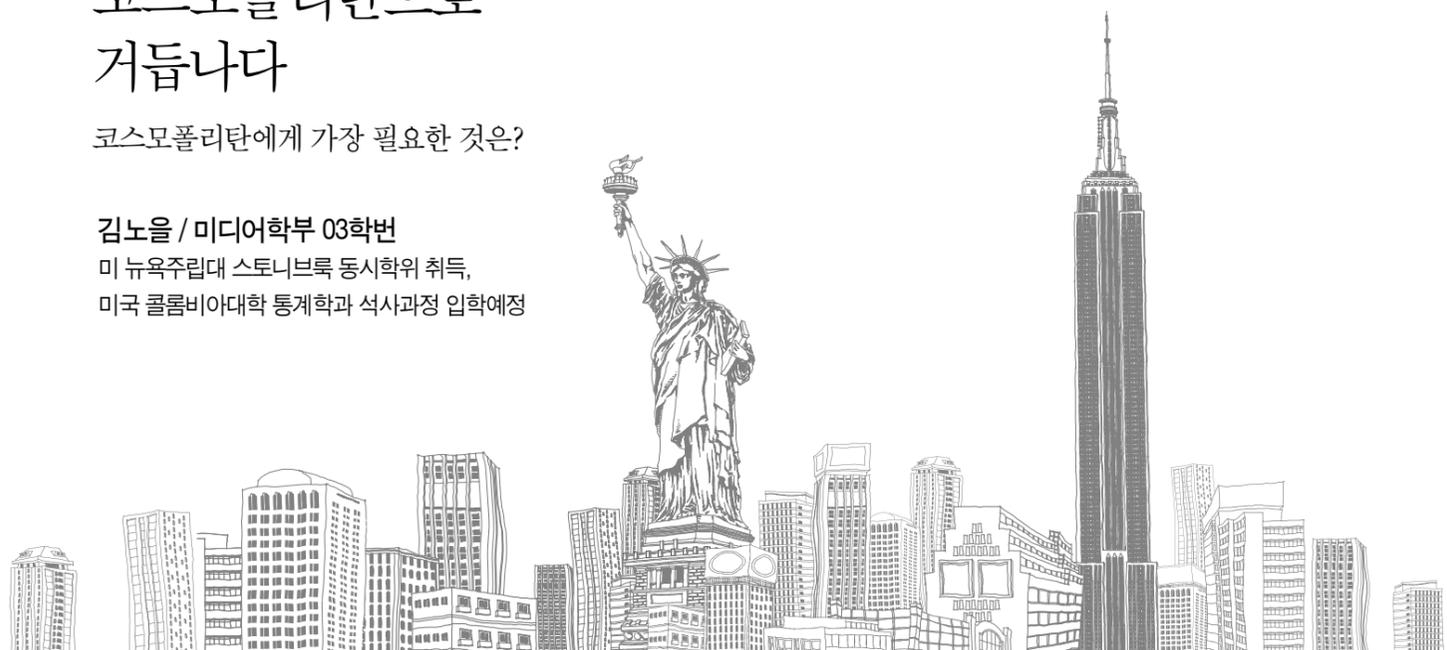
뉴욕 다운타운에서 성페트릭데이(St. Patrick's day) 퍼레이드에 참가한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성페트릭데이(3월 17일)는 아일랜드의 최대의 축일로 5세기 아일랜드에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성인 페트릭을 기리는 날이다. 성 페트릭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고 퍼레이드를 벌이고 네잎클로버를 붙인 책을 선물하는 풍습이 있으며, 초록색 옷을 입지 않으면 꼬집힌다고 한다. 아일랜드계 이민자가 많은 미국에서 꽤 성대한 행사로 꼽히고 있다.

토종한국인,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나다

코스모폴리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김노을 / 미디어학부 03학번

미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동시학위 취득,
미국 콜롬비아대학 통계학과 석사과정 입학예정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만난 우리나라 기업의 광고판 앞에서 반가운 마음에 포즈를 취했다.



아주대와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 두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받은 김노을 등문은 2+2프로그램으로 스토니브룩에 가기 전에는 어학연수 한 번 가본적 없는 순수 토종한국인이었다. 그런 김 등문이 동시학위도 모자라 콜롬비아대학 석사과정 입학 허가까지 받았다니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2+2프로그램을 알게되다

김 등문의 애초 목표는 교환학생이었다. 다산장학, 원천장학 등을 받을 만큼 성적이 좋았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놓지 않았던 영어공부 덕분에 토플점수도 좋았다. 이런 김 등문에게 필요한건 정보. 하지만 정보수집 역시 어렵진 않았다. “교내에 외국인 학생이 워낙 많아 교환학생 준비를 하며 궁금한 것들을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미국친구들에게는 미국의 대학 분위기를 물어보고 유럽친구들에게는 유럽 대학의 분위기를 물어봤죠. 또 교환학생을 다녀온 선배와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인터넷 카페에도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수강신청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한 학기를 짧게 다녀오는 교환학생보다는 동시에 두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2+2프로그램을 지원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욕심이 생겨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토종한국인 미국대학에 적응하다

순탄하게 2+2프로그램에 수혜자가 된 것에 비해 초반 미국생활은 많이 힘들었던단.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도 없었고, 해외여행을 근본적도 없었던 그냥 평범한 한국의 여대생이었던 김 등문. 토플점수는 높지만 24시간을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야하는 생활이 참 답답했다고 한다. 그래도 아주대에서 만난 미국친구가 멀리서나마 미국생활에 대해 조언해주기도 하고 함께 수업을 듣던 일본 친구와 타이완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미국생활

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아주대에서 외국인 학생들과 생활하며 배운 생활방식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해 못하는 내용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수님께 찾아가 썩썩하게 물어보기도 하고, 학교의 사무실을 찾아가 자신의 홍보를 하며 일자리를 얻는다든지 하는 일들을 보통 다른 한국 학생들은 잘 못하더라고요. 유난히 아주대 학생들만 잘해요. 2003년도에 공부했던 00학번 선배는 스토니브룩 홍보대사도 했다고 해요. 저도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력서를 써서 무작정 스토니브룩의 국제협력처를 찾아갔어요. 제가 잘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냐고 했죠. 마침 그 사무실에 web developer, 우리나라로 치면 웹마스터 자리가 비어있더라고요. 미디어학부에서 2년 공부했고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터넷학생 생활도 2년이나 했던 저에겐 그야말로 딱 맞는 자리였죠. 다른 학생들보다 0.5배 정도 일당을 더 받는 직종이어서 마지막 1년 생활비는 제 힘으로 충당하며 보냈어요.”

코스모폴리탄이 되다

오는 9월부터 콜롬비아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시작할 김 등문에게 미국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영어실력도 필요하고, 외국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필요한 건 열린 마음이 아닐까요? 영어 실력이나 정보가 부족한 것은 시간이 해결해주거든요. 하지만 외국인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김 등문은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인들과 접촉을 부담스러워하며 한국 사람들끼리 물러다니는 모습이 의아했다고 한다. “저는 굳이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을 나눠가며 사귀는 것이 이상해보였어요.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교수님이나 친구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면 결국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외국인도 문화가 다르면 그 부분을 그냥 이해하면 되거든요. 사실 다른 것이 당연한 거고요. 외국인 교환학생이 많은 아주대에서의 생활 때문인지 저는 자연스럽게 한 것인데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는 어려운 일인가 봐요. 열린 마음만 있다면 영어가 유창하지 않아도 유학생에게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자연스럽게 느끼며 이미 코스모폴리탄으로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 김노을 등문. 십년 후 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궁금해진다. ○



AJOU SCENERY
개교 36주년 기념주간 이모저모

벚꽃이 만개한 4월, 개교 36주년 기념주간을 맞아 캠퍼스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꾸며졌다. 동아리, 소학회 콘테스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숨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고, 지역주민과 함께했던 연극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는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에 충분했다. 2009 벚꽃축제를 통해서 교수, 직원,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었으며, 또한 신입생 학부모를 초청해 캠퍼스투어 및 학부교수와의 간담회를 진행함으로써 학부모 및 학생들의 애교심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봄에 찾아온 손님, 당신은 아주인입니다

09학번 신입생 학부모 개강파티

아주대학교가 지난 4월 12일 개교 36주년을 맞았다. 학교는 해마다 4월 둘째 주를 개교기념주간으로 선포하고 교직원과 신입생 학부모, 수원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그 중 하나인 신입생학부모 대학방문의 날 행사는 해마다 1천명 이상의 학부모가 참석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신입생 학부모 개강파티' 라는 이름으로 새 단장을 하고 전체 행사와 학부별 교수와의 간담회, 리셉션 등 6시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개강파티에 초대한다는 말에 참석했는데 학부모 중까지 발급을 해주시 저도 아주인으로서의 소속감이 느껴지는데요?"

1부: 아주인으로 교정을 거닐다

지난 4월 11일 벚꽃이 만발한 아주대 캠퍼스는 학부모들로 가득 찼다. 09학번 신입생 학부모를 모두 초청하는 '신입생 학부모 개강파티' 가 열렸기 때문이다. 공식행사 전에 진행된 캠퍼스투어부터 학부모들은 설렘을 드러냈다. 박환혁(서예원 학생 학부모/경영학부)씨는 "이렇게 꽃이 만발한 캠퍼스를 거닐어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직접 걸으며 학교를 구석구석 살펴보니 우리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상상할 수 있어 더 재미있네요."라며 즐거워했다. 도보투어를 진행한 홍보대사 박성현(기계공학부 4)학생은 아주대학교 병원을 시작으로 율곡관, 학생들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된 신학생회관, 법학전문 대학원이 들어선 법학관, 팔달관 등을 차례로 설명하며 걱정 가득한 신입생 학부모들에게 든든한 선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각 전공별로 교수님이 주도하는 소학회가 있어서 관심분야의 소학회에 가입하면 전공 지식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교수님과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라며 소학회 가입을 권유하기도 했다.

2부: 학교의 미래를 보다

캠퍼스 투어에 이어 체육관에서 열린 본 행사는 '아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학부모들에게 보여주는 시간이었다. 서문호 총장은 "36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성장한 대학은 드물다. 젊음과 열정이 있어 오늘의 아주가 되었다. 신입생들을 열심히 교육시켜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며 학부모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신애경(백대기 학생 학부모/응용화학생명공학부)씨는 "총장님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아주대학교에 보내기를 참 잘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 든든합니다."라고 말했다.

3부: 교수님과 인연을 맺다

개강파티의 하이라이트는 학부 별로 이루어진 설명회. 학부모들은 지도교수들과 직접 만나 각 학부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대일 질문의 시간도 가졌다. 나상신 학부장(전자공학부)의 전자공학부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재남(황중문 학생 학부모/전자공학부)씨는 "공학관련 과목에 공학교육인증을 모두 받았다고 하니 아주대학교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또, 교수님들이 학과에 적지 않은 액수를 기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 대한 교수님들의 애정이 느껴져 정말 믿음직스러워요."라며 발전기금을 낼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 다산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영학부 행사에서도 다양한 인턴십 과정과 소학회 활동, 취업을 위한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하는 1:1클리닉 운영, 글로벌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설명이 이어졌다.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이 들려주는 당부의 말에 열정이 느껴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특히 용세중 교수님이 경영학부의 높은 위상을 설명하며 자부심을 가지라는 그 말에 힘을 얻고 갑니다."며 서예원 학생(경영학부 1)의 학부모는 뿌듯해했다.

이어진 리셉션 시간에는 교수들과 학부모의 일대일 대화가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전공공부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까지 그 동안 궁금했지만 마땅히 물어볼 곳이 없어 답답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임재원(전자공학부 1)학생의 학부모는 "교수님과 이렇게 일대일로 여유있게 대화를 나누니 속이 시원합니다. 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네요."라며 웃었다.

리셉션까지 모든 행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길에 만난 김기호(김수중 학생 학부모/경영학부)씨는 "저희 아이는 아주대학교 이외에도 여러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한 이후에 꾸준히 자료를 보내주는 학교는 아주대학교밖에 없더군요. 학교 소개서며 선배가 쓴 편지 등 성의를 다 하는 모습에 이런 학교라면 우리 아이를 맡길 수 있겠다 싶었지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우리의 결정이 옳았음을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학교가 학부모에게 개강파티를 열어주고 설명회를 하고 교수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자신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주의 그 자신감을 믿었습니다."

"더 깊은 자녀사랑, 함께하는 아주" 09학번 신입생 학부모님의 방문을





새로움 + 새로움의 시너지

금융공학협동과정 심규철 신입교수

우리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79억여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우리학교는 내년부터 대학원에 금융공학협동과정을 개설하고 금융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수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융복합 학문으로서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용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심규철 신입교수를 만났다.

금융의 연금술, 금융공학을 가르치다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금융공학협동과정이란 무엇인지 묻자 '재무적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어 놓는다. 덧붙여 말하자면 수학적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금융시장(주식, 채권, 원자재 등의 현물 시장과 이에 대한 선물 및 파생상품 시장)을 분석하는 학문의 분야로서 경영학(재무), 산업공학, 응용수학 등이 어우러진 융합학문이다. 금융공학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왔을 무렵으로 외국에서는 1970년대 즈음 새롭게 부상했다. 오늘날 금융에 대한 높은 관심은 금융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관심으로 고스란히 이어져 국내 대학들이 금융공학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아주대학교 대학원에 금융공학협동과정이 개설된다. "금융공학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수학, 경제학, 경영학 등의 이론을 탄탄하게 함은 물론 금융공학의 기술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기능인을 뛰어넘어 금융 산업의 리더 탄생을 목표로 하는 학과간 협동과정입니다." 이러한 금융공학은 실제로 사회에 진출해 증권사나 은행 등의 운영부서나 위험관리부서에서의 계량분석업무, 금융상품개발 등으로 이어진다.

아주대에서 금융공학의 길을 만나다

90학번인 그는 포항공과대학 수학 학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응용확률론과 금융수학 및 통계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박사1년 차 때 수리금융으로 연구 방향을 결정하면서 순수 수학자가 아닌 경제와 경영, 금융이 융합된 학문으로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때마침 포항공대에서 강의를 맡았던 구형건 교수와 한양대에서 금융공학 관련 대리인 이론 강의를 하며 청강을 허락해 주었던 성재영 교수, 두 교수(현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의 영향이 컸다. 경제경영학 분야에 대한 가르침을 받으며 금융공학을 향한 목표를 뚜렷히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가졌던 수학적 지식 위에 경제와 경영학을 덧입으면서, 금융공학의 길로 접어들게 된 것이다. "한 때 금융공학은 불이 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댄 학문입니다. 하지만 선형 연구자나 인적 자원이 드물고, 생각보다 여러 분야에 대해 폭넓고 깊은 공부가 필요해 포기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 중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던 것이 오늘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주변에서 하나 둘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기할 때 그는 자신의 연구를 놓치지 않았다. 연구에 매달렸던 지난 시간, 인내와 끈기로 매진했던 시간이 있었기에 인적 자원이 부족한 금융공학의 든든한 주춧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는 금융기법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한국과학기술원의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금융공학 전반을 연구했고, 우리나라 금융시스템(금융시장, 금융

기관, 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점검하는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에서 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안정성 점검을 위한 계량적 방법을 연구·개발하는 프로젝트를 맡기도 했다.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과 직결되는 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며 다양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해 하루하루 발전을 이루는 자신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한다. 2003년부터 아주대 경영대학원 강의를 맡아 인연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금융공학협동과정이 신설되면서 학교 측의 교수직 제안을 받았고, 스승님들이 있는 대학에서 함께 연구도 하고 서로의 학문적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미국 UT-Austin으로 금융수학과정 연수를 다녀왔을 뿐 따로 유학길에 오르지 않았던 그는 딱히 유학이 필요 없었음을 이야기한다. "금융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세 스승님이자, 아주대 경영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구형건, 성재영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유학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연수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사고와 연구를 하는 방식, 분위기 등에 대한 경험을 쌓았죠."

새로움을 향한 문을 활짝 열다

협동과정의 특성상 여러 가지 학문들이 융합되다 보니 한 분야라도 누수가 생기면 연쇄반응이 오기 마련. 그는 수업 원칙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다. "어려운 내용이나 생소한 학문도 결국 기초적이고 원론적인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노력해요. 공부든 일든 어떻게 하는가에 앞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주지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사시절 맺은 인연으로 교수님이라는 호칭 대신에 형이라는 호칭으로 통하기도 한다는 그는 학생들이 편하게 생각해주는 것이 좋라며 학생들과 거리낌 없는 모습을 보인다.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죠. 망설임이나 주저 없이 학생들이 질문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습니다." 아주대에서 첫 발걸음을 내딛은 심 교수는 자신을 활짝 열어놓았다. 하나의 전공 교수이기보다는 호기심의 경로를 따라 새로운 것, 새로운 학문을 꾸준히 연구해나가는 학자이기를 원한다는 그는 새로움과 새로움이 만나 빛어내는 시너지를 학문과 강의를 통해 아주대에서 구현해나가고 있다. ○



금융공학은 기존의 학문들 간의 접점을 끌어내어 실제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상품을 디자인하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금융의 연금술이라 지칭된다.

아주에서 자라 세계에서 연구한다

Institute of Geodesy and Navigation(측지학 항법 연구소) 연구원 원종훈 동문

-아주대 제어계측(현 전자공학부) 91학번-

우리가 흔히 쓰는 내비게이션에서 사용하는 지구위성항법시스템은 미국에서 개발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가 독보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ESA(European Space Agency: 유럽항공우주국)에 의해 유럽형 GPS '갈릴레오'가 개발되면서 위성항법시스템 분야의 지형도가 변하고 있다. 갈릴레오가 미국형과는 달리 상업적인 목적으로 연구·개발되면서 세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총 투자액 70억 유로(약 10조원), EU의 독자적인 과학 프로젝트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 세계가 주목하는 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아주인이 있다. 독일 Institute of Geodesy and Navigation에서 ESA의 절대적 지원을 받으며 '차세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아주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마친 원종훈 동문이 바로 그다.

원종훈 박사는 아주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마치고 독일 뮌헨 FAF 초청연구원, 도쿄 전자항법연구소 초청연구원을 거쳐 한국항공우주연구소(KARI)연구원을 지냈다. 70여 편의 전문기술논문과 20여 편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Institute of Geodesy and Navigation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Institute of Geodesy and Navigation(측지학 항법 연구소)은 전 세계 위성항법분야 5대 연구소 중의 하나로 꼽히며, 독일연방국방대학 소속인 연구소와 벤처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2020년 완료로 목표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차세대 갈릴레오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원종훈 동문은 우주부(위성), 관제부(지상관제소), 사용자부(수신기)로 나뉘는 위성항법시스템 중에서 '사용자부(수신기) 설계 및 분석'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다.

넓은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도전하다

아주대학교에서 학부와 석·박사까지 마친 그가 독일에 터를 잡고 세계적 권위의 위성항법시스템 연구소 연구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을 터. 비결은 무엇일까? "가만히 앉아 열심히 연구만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알아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석·박사 과정 내내 끊임없이 다른 나라, 다른 환경으로 새로운 도전을 계획했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지원했습니다. 전공분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가 처음 GPS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된 것은 학부 4학년 무렵. 「추정이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었던 GPS분야에 대해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미국

GPS를 개발한 초창기 멤버이자 락웰인터내셔널의 선임부장으로 재임했던 전자공학부 이자성 교수가 계시지 않았다면 아예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나도 GPS전문가로서 세계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란 꿈을 키웠습니다. 이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나 연구, 말씀 하나하나가 제겐 귀감이 되었죠. 제가 세상 어디에 있더라도 저를 지원해주고 저를 응원해줄 스승님이세요."

하지만 그도 국내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답답함이 없진 않았다. 보다 넓은 무대로 나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기술을 익히고 싶었다. 그러던 중 대통령령의 해외 방문과 더불어 이루어지게 되는 정보, 문화, 교육, 인적 교류 중의 하나인 국가간 인력 교류의 프로그램에 지원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인적교류인 만큼 여러 연구 실적과 논문, 교수의 추천서 등 까다로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고 원 박사는 이러한 국가간 인력교류 프로그램을 놓치지 않고 지원하면서 자신의 연구 무대를 세계로 넓혀갔다. 2001년 독일 뮌헨 FAF, 2003~2004년 도쿄 전자항법연구소 등에서 초청연구원으로 근무하며 경험을 쌓기도 했다. 초청연구원 시절에도 그의 능력과 성실성은 탁월하게 빛을 발했고, 특히 뮌헨 FAF 초청연구원 시절을 기억한 독일 측지학 항법 연구소의 프러포즈로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오게 된 것이다.

신뢰와 지원이 인재를 키운다

올해로 독일에서의 생활이 4년째인 원 동문이 처음 독일친구들을 사귀며 놀랐던 것은 그들의 인생관이라고 말한다. "유럽 젊은이들은 눈앞의 현실에 대한 고민보다는 30~40년 뒤에 인류에게 필요할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나눕니다. 취업과 영어공부에 쫓겨 학점 때문에 경쟁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보면 세계의 미래를 이끄는 힘은 이런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인식 때문인지 독일에서는 당장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연구보다는 몇 십년 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술에 전폭적인 투자를 많이 한다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원 동문은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꼽는다. "유럽의 이런 정서가 부럽습니다. 하드웨어를 멋지게 갖춘다고 하루아침에 뭔가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마인드에서부터 출발해 차근차근 과정을 밟아가며 적절한 콘텐츠를 갖추고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후배들도 단순히 취업을 위한 전공공부나 학점관리, 영어공부를 하기보다는 제일 먼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기본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간다면 세계무대에서도 부족함 없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Globe:
 You can refer to the world as the globe when you are emphasizing how big it is or that something happens in many different parts of it.

글로브: 세계가 얼마나 크지를 강조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조할 때 '세계' 라는 단어 대신 사용한다.

아주 안의 세계를 그리다

아주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Ajou Globe



아주글로브의 의미는 '아주의 세계'이다. 말 그대로 아주안의 또 다른 세계, 아주 안의 작은 세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주글로브는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매체이다.



아주 속에서 글로벌을 만나다

영자신문 아주글로브는 헤드라인이나 기사 선정 기준도 학보와는 조금 다르다. 일단 아주글로브는 두개 매체로 나뉘는데, 1989년 설립 이후부터 만들어진 36페이지의 매거진과 학보 안에 삽입되는 간지(국제면)가 그것이다. 매거진 The Ajou Globe은 아주대 학생들을 위해 만드는 글로벌 교양잡지이다. 임지수 편집장(법학부 3)은 "매거진은 학교안의 소식보다는 학교 밖의 소식을 영문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슈가 되는 인물이나 특이한 이력이 있는 대학생이 있으면 아주대 학생은 물론 타 대학 학생도 가리지 않고 찾아 인터뷰를 합니다. 혹은 세계적인 이슈에 대해 다루기도 하는데 교내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도 참여하곤 합니다. 5월 11일자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해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아주대 학생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영문 잡지인 셈.

간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타블로이드 크기 4개 지면의 간지는 학보와 함께 발행되는 만큼 발행주기가 짧아 시기에 맞는 기사로 꾸며진다. 외국인



학생들이 주 독자층으로 외국인 학생과 함께 하는 행사 스케치나 교내 이슈를 취재해 구성한다. 이현정(인문학부 2)학생은 "간지는 교내 외국인 학생들의 안내관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아주대 학생들에게 영어의 친숙도를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간지 제작으로 아주글로브 기자들은 많이 바빠졌지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라고 말한다. 5월 18일에 발행되는 간지에는 우리학교 도서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을 예정이다.

이쯤 되면 궁금해진다. 영자신문사 기자들은 어떤 학생들이길래 취재와 기사 작성으로도 모자라 영어로 신문을 만드는 것일까?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인지 물어봤다. "영어실력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언론기관이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더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임 편집장은 "시사토론과 북 세미나 등을 통해 국제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기사나 름의 고민과 사고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교수님이나 OB 선배들이 틈틈이 영어교육을 시켜주는데다 외국인 교수님이 마지막 교정을

봐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자격조건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기자로서의 마음가짐과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나머지 자격은 함께 신문을 만들어 갖추어 가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아주의 눈으로 세계를 담아내다

방향이 되면 가장 영자신문사다운 취재인 '해외취재'를 진행한다. 임 편집장은 "지난해 영국 노팅엄 대학을 방문해 우리학교와 비교하는 기사를 기획했습니다. 기숙사나 식당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노팅엄 대학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영어로 취재 하고 기사를 작성하니 한국에서와는 다른 느낌이 들었고 제가 느낀 것을 생생하게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데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또, 아주대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아주글로브의 눈을 통한 글로벌 뉴스를 전달했던 재미있는 기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며 그때의 경험이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음을 밝힌다. 노팅엄 대학 신문사와는 그 때의 인연으로 지금도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

흥미롭고 고무적인 사실은 아주글로브를 읽고 직접 찾아와 글을 기고하겠다는 외국인 학생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이다. 이번 학기만 해도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10여 명이 아주글로브에 글을 실고 싶다는 이력서를 보냈다. "아주글로브가 아주인의 견문을 넓히고 교내 외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세계와 친해질 수 있는 가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현재 발행되고 있는 간지의 면을 조금 더 늘려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실고 싶습니다. 간단한 안내나 현황 기사 밖에는 심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라고 말하는 임 편집장은 아주글로브를 앞으로 우리학교 학생과 외국인 학생 모두가 애독하는 언론으로 만들어 함께 어우러지는 장으로 발전시키고 싶단다. 글로벌 언론으로서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 아주글로브. 10년 후, 2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지 기대해본다. ○

캠퍼스 안에서만 세계를 즐길 수는 없는 법. 직접 세계무대에서 부딪히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가능성을 시험해보자. 아주대학교에서 세계로 통하는 문은 매학기 160개 나라에 150명 이상의 교환학생을 파견할 만큼 문턱이 낮다. 교환학생이 졸업 전 필수코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 대학에서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강의를 듣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교환학생되기 프로젝트를 시작해보자!

교환학생 다녀왔니? 안 다녀 왔음 말을 마

대학에서의 첫 중간고사를 무사히 마친 09학번 새내기 아주군의 꿈은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인 IT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다. 정보및컴퓨터공학부에 재학 중인 아주군은 그 꿈을 위한 첫걸음으로 '교환학생되기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국제협력팀의 문을 두드렸다.



교환학생 준비를 위해 공부하다보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없지 않을까요? 대학에 왔으니 동아리 활동도 하고 싶고 해외배낭여행도 가고 싶은데요.



저는 앞으로 세계 IT시장을 주름잡을 IT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꿈이랍니다. 외국에서 공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첫 단추를 꿰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오호, 아주군. 교환학생을 지원하고 싶으시군요. 교환학생을 가장 많이 가는 때는 3학년 2학기예요. 보통 1학년을 워밍업 기간, 2학년을 실전준비 기간, 3학년 1학기를 예비 적응훈련기간으로 정해 각 학년에 맞는 준비를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어강의를 들으면 영어실력과 학점을, 국제화 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면 해외 봉사나 현장연구와 영어실력을 동시에~ 두 개 모두 교환학생 선발 가산점도 얻을 수 있으니 평 먹고 알 먹고~ 특히 영어 강의 시간에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영어 면접에서 퍽퍽히 써먹을 수도 있답니다. 프렌즈클럽, 한국어학당, AGA, 국제협력팀 교내봉사 등도 실전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외국인 친구들도 사귄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이 될 겁니다. 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면 6개월간 그 나라의 문화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니 배낭여행이 나 어학연수에 비할 수 없겠죠?



그럼 저도 3학년 2학기를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IT분야가 발달된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은데요. 1학년인 제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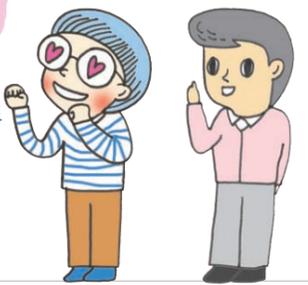


1학년은 체력단련기간 정도라고나 할까요? 우선 영어실력과 전공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동시에 함께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영어실력도 쑥쑥 자라지만, 본인이 가고 싶은 나라와 대학의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해외 체험도 다녀올 수 있다니~ 멋져요~

그럼, 1학년부터 2학년까지 교환학생 파견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쑥쑥 뽑아서 알아볼까요?



미국이나 유럽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아주군에게 한 가지 팁을 드려죠. 미국은 많은 학생들이 선호해 경쟁이 치열하니 영어점수나 학점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유럽은 오랜 역사의 수준 높은 명문대학들이 많은 데다 EU로 묶여있어 교환학생기간동안 틈틈히 유럽여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학교와 결연을 맺은 학교 숫자가 많아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젝트 알짜정보**
- 1) 세계 160개국의 자매대학으로 지원가능
 - 2) 본교 2학기 이상 수료, 평균 평점 3.0 이상 지원가능
 - 3) 선발과정
 - 1차 학점과 영어 (토익 700, 기관토플 520, IBT 68) 서류전형
 - 2차 영어 및 해당 국가 언어 인터뷰,
 - 3차 1~2차 자료에 가산점+최종 면접
 - 4) 1년에 두 번(6월, 12월) 교환학생 선발
 - 5) 골라 받는 재미! 교환학생 장학금, ISEP 프로그램, ASEM-DUO, FH-Nuertingen Scholarship, 미래에셋 교환장학금, 글로벌형, 학장추천장학장학금

교환학생 선발은 한학기 먼저 선발되니 파견이 정해지고 난 후에는 대학과 나라가 정해져 출가분할 것 같네요.



할 일이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3학년 1학기를 잘 보내면 교환학생 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어요. 파견될 나라의 교환학생을 만나 정보를 얻고 교환학생 커뮤니티 (www.cafe.ajou.ac.kr/OIA)에 들어가 집 구하는 것부터 책 구하기까지 선배교환학생의 실용정보를 찾아보세요. 아! 전공필수나 교양필수는 되도록 다 듣고 가세요. 자~이제 정보를 알았으니 열심히 준비할 일만 남았군요. 화이팅!!!



가고 싶은 대학에 파견되기 위해서는 영어점수와 학점관리가 필요하겠네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영어 성적 올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학점은 평점 3.0이상! 영어점수 기준은 매년 바뀌니 국제협력팀의 공고를 꼭 참고해요. 영어공부는 '토익사관학교'라 불리는 신입생집중교육과 단과대별 영어집중교육을 들어보세요. 보다 재미있게 영어실력을 올릴 수 있는 영어 회화나 영자 신문 읽는 동아리에 참여해 영어실력뿐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에 대한 관심도 키우고요. 영어점수만큼 중요한 것이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는 것 잊지 말아요.

서문호 총장,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선임

서문호 총장이 한국공학한림원의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서 총장을 포함해 학계에서는 김도연 울산대 총장, 홍국선 서울대 교수 등 6명이, 산업계에서는 박상훈 SK에너지 사장, 이정훈 서울반도체 사장, 이정환 LG전자 부사장 등 6명이 참여하며, 박영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과 유명희 KIST 21C 프론티어사업단장, 고정식 특허청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식재산위원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의 글로벌 기업과 특허전쟁에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정책제언과 자문에 나설 산업계 및 학계 리더 19명으로 구성된 민간 중심의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비전제시와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주요 의제로는 세계적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육성, 최고 수준의 지식재산 인력양성,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보상체계 구축, 친 기업적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등을 다룰 계획이다.

2009년 1학기 외국인 학생 580여 명 수하

2009학년도 1학기에는 세계 53개국에서 온 580여 명의 외국인 학생이 우리학교에서 공부중이다. 석·박사 과정을 포함한 학위과정에는 230명이 현재 아주대학교에서 수학 중이며 이 중에는 대한민국 정부 국비장학생 7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 해외자매대학에서 온 외국인 교환학생 120여 명도 이번 학기 아주대 캠퍼스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다. 박만규 대외협력처장은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00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출신국가들이 한 국가에 집중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아주대 학생뿐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된 아주대 학생은 135명이며, 복수학위로 미국의 뉴욕주립대 스토니브룩과 일리노이 공대, 호주의 선샤인코스트 대학에 파견된 학생은 70여 명 가량이다.



2009학년도 신입생 2천189명 입학(사진)

2009학년도 신입생 2천189명이 2월 18일 체육관에서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수들의 학사행렬로 시작되었으며 입학 허가에 이어 신입생 대표 최윤규(미디어학부), 정누리(경영학부) 학생의 입학선서가 진행되었다. 서문호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목표설정을 한 후 꾸준히 노력하라.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다스려라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라’는 당부를 하였고, 학부모들에게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부탁했다. 입학식사 후에는 김철환 기초교육대학장의 ‘탄탄한 기초, 보장되는 미래’를 주제로 하는 기초역량강화프로그램에 대한 특강이 이어졌다. 학교는 올해부터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학기가 시작하는 3월 2일부터 차질 없이 학사일정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학식을 일주일 가량 앞당겨 진행했다.

오영태 교수, 대한교통학회 회장 선출

오영태(환경건설교통공학부) 교수가 2009년 대한교통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대한교통학회는 교통분야 최대 학회로 도로, 철도, 항공, 물류 분야 최고 전문가 3천여 명으로 구성된 학회이다. ITS대학원 원장이기도 한 오교수는 대한교통학회의 편집위원장, 제1회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임기는 오는 2011년 3월까지 2년간이다.

김용규 외 3명 '제3회 하우스토리 마케팅 공모전' 대상 수상

김용규, 한재원, 서정혁 (건축학부) 학생이 (주) 남광토건이 주최한 '제3회 하우스토리 마케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김용규 외 3명이 설계 부문에 출품한 '인프라 스트러처 하우스 시스템'은 주택단위세대 평면 및 인테리어 컨셉 개발안으로, 상상력이 뛰어나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군은 “도심 내 주거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저층용 주거단지 위에 따로 대지를 확보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과거의 주거 공간 확보 설계안과 비교했을 때, 현재의 건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실용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3회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설계/광고/마케팅 부문에 총 480여 개의 작품이 출품돼 전체 응모작 가운데 대상과 최우수상 1팀, 부문별로 우수상과 장려상 1팀, 입선 3팀이 선정됐다.

제11기 동계 네팔 해외봉사단 '천사의 날개' 14명 파견

우리학교의 제11기 동계 네팔 해외봉사단이 지난 2월 2일 네팔 현지로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번 파견에는 네팔 어린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LG트윈스 프로야구단에서 의류 8백여 벌, 가방, 야구용품(2천만 원 상당), 수원 삼성 블루윙즈 프로축구단에서 축구공(3백만 원 상당) 등의 물품을 기증받아 네팔 어린이들에게 전해주었다. 김공환(생명분자공학부 교수) 단장을 비롯한 단원 14명은 약 2주간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인근 버디켈 지역에서 지역 어린이 교육, 보건 위생 및 마을 환경 개선, 문화교류 활동에 참여하였다. 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네팔 해외봉사단'은 지난 3월 26일 울곡관 영상회의실에서 봉사활동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단원들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빛내(경영학부 3) 학생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며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봉사를 위해 들인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은 것 같다”라며 이번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김공환 단장은 “이번 봉사를 계기로 매사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아주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승호 외 2명,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수상

'2008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의 '선행조사' 부문에서 이승호(항공 및 신소재공학부 3학년), 박호진(기계공학부 3학년)군이 CEO상을, 이관우(기계공학부 2학년)군이 가작을 수상했다. '선행조사' 부문은 기존의 특허출원서 또는 발명요약서에 관련된 선행기술 조사 후 특허가능성을 판단해 제출한 특허 제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학교는 동 분야에 지원한 59개 대학 가운데 KAIS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상자를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버텍스 방지기술'로 CEO상을 수상한 박군은 “교양수업 '발명과 특허'를 강의하시는 최승철 교수님의 제안으로 기계, 금속 분야에 특허제안을 냈다”며 “지난 학기 동안 수강한 내용을 전공과 연계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주최한 '2008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는 대학의 실용적 특허교육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우수인재와 아이디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처음 개최됐다. 주최 측은 앞으로도 매년 개최될 행사를 통해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취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지식 재산 분야 인재를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설립 기관 선정

우리학교가 'IT-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력양성센터' 설립기관으로 선정돼 2년간 3억5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였다. 'IT-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력양성센터'는 기업·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자동차와 IT기술을 융합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식경제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우리학교는 졸업 1년 이내의 미취업자를 교육하는 인증 과정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총괄 책임자인 송봉섭(기계공학부) 교수는 “센터에서는 IT분야와 자동차 분야의 지식을 모두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IT와 자동차 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실무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T-자동차 분야 융·복합 인력양성센터'는 3월 기계·전기·전자·컴퓨터 등의 학부전공자를 대상으로 총 50명의 수강생을 모집했다.



'유레카'와 '시숲' 동아리소학회콘테스트 대상(사진)

발명동아리 '유레카'와 국어국문학 전공 소학회 '시숲'이 2009년 동아리소학회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울곡관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5백여 석의 자리가 꽉 찼만큼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박일분 대학문화팀장은 “올해로 여섯 번째 진행되는 콘테스트이다. 해가 갈수록 학생들의 활동이 다양해지고 수준도 높아져서 대학문화위원회에서 우열을 가리느라 고심을 했다고 한다. 공부도 잘하고 과외활동도 잘 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많아 졌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행사는 지난해 대상 수상팀인 소학회 'CEO FORUM'의 소개와 합합 동아리 '비트'의 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서문호 총장의 격려사와 심사 경과보고 후 시상이 진행되었으며 추첨을 통해 교수들의 저서를 나누어 주는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올해는 동아리 37개, 소학회 56개가 참가를 신청하였으며 20개 동아리와 20개의 소학회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등 부문별로 수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학생들뿐 아니라 지도교수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루어졌다.

2008 자율적 책임경영 시상

2008학년도 자율적 책임경영시상이 지난 3월 17일 진행되었다. 서문호 총장은 시상식에서 "자율적 책임경영은 각 학부나 전공에서 백지 위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말하면서 "학사 제도부터 인사 관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학부만의 독특한 자율경영 시스템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주대학교는 2006년 자율적 책임경영제도를 만들어 2007년부터 시행했다. 올해는 6개 단과대학 14개 학부를 대상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였다. 연구역량부문 우수상은 전자공학부가, 교육역량부문 우수상은 기계공학부가, 국제화역량 부문 최우수상은 화공신소재공학부 등 4개 학부가 수상하였다.

모두 1억 7천9백만여 원의 상금이 시상되었으며 이 중 전자공학부는 연구역량부문 우수상, 국제화역량 부문 우수상, 특별상 논문부문 최우수상, 국제논문부문 우수상, 국내논문부문 우수상을 수상해 최고 금액인 약 5천5백만 원을 받았다.

'아주CEO포럼' 창립총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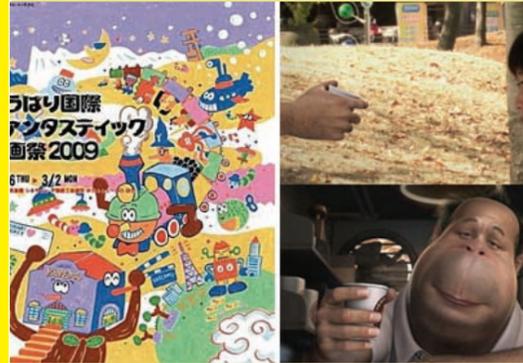
총동문회(회장: 강태현 전자공학과 75학번)는 지난 4월 8일 서울 노보텔에서 '아주CEO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아주CEO포럼은 아주대학교 출신 CEO 180여 명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앞으로 매달 첫 주 수요일 조찬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찬모임에서는 CEO 리더십강화, 창업자 멘토링 등이 진행되고, 젊은 CEO를 위한 프로그램과 동일 직종끼리의 정례 워크샵을 열었다.

강태현 총동문회장은 "아주 CEO포럼은 아주대학교 학부 동문들이 모여 만든 포럼으로 벤처정신, 기업정신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아주대학교 동문기업들의 실패와 성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단순한 친목 도모가 아닌 CEO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로간의 정보교환도 이루어지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주CEO포럼 창립총회에는 서문호 총장을 비롯해 180여 명의 아주CEO포럼 회원들이 참석하여, 유필화(성균관대) 교수의 '강소기업(Hidden Champion)의 성공비결'을 주제로 특강이 이루어졌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7년 연속 여대생의 오아시스 되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오아시스' (센터장: 김혜선 자연과학부 교수)가 여성부가 지원하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사업 대학'에 7년 연속 선정됐다. 여성부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본교 동 센터는 정부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올해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또한 2006-2008년에 이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공동참여사업 주관대학'으로 추가 선정돼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실무자 워크샵 및 심포지엄 진행,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 등을 총괄하게 된다. 올해부터 센터 측은 재학생을 위한 '젠더의식 강화', '여대생 직업 훈련 및 직무 능력 향상', '여대생 개인별 커리어 관리' 등의 3가지 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외에 '고학력 여성 경력 단절 예방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커리어우먼 디자인하기>라는 특강을 추가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재학 중인 여학생 이외에도 졸업생 및 지역사회 여성과의 연계 등 프로그램 수혜대상을 확장한 새로운 기획을 구상 중이다.



CGI Lab,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특별언급' 영예(사진)

석해정(미디어학부) 교수의 연구팀(CGI Lab)이 제작한 '미스터 벤딩머신(Mr. Vending Machine)'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간 열린 일본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되어 심사위원으로부터 특별언급(Special Mention) 되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 19회를 맞은 본 영화제에서는 총 302편의 작품이 응모되었고 상영작 10편 중 2편이 한국 작품이었다. 타카하시 반메이 심사위원장은 "10편의 본선 경쟁작 가운데 유일하게 본 작품만이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만표(滿票)를 받았다"며 특별언급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감독인 오진욱 학생은 "대학에서 만든 작품이라는 소개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고, 특히 자연스러운 CG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하며, "CGI Lab에서 만든 첫 작품이 외부에서 인정 받았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GI Lab의 작품은 실사영화와 3D 애니메이션이 결합된 '실사합성애니메이션'으로, 지난해 10월에 완성된 후 이번 영화제를 통하여 처음으로 선보였고 2월 27일 오전과 오후, 그리고 3월 1일 세 차례에 걸친 상영이 모두 매진될 만큼 큰 주목을 받았다.

캠퍼스 곳곳에서 느끼는 세계

아주 글로벌 캠퍼스

Ajou Global Campus

